

연중 제 25 주일

기 도 서 440 면

제 1 독서 : 지 서 2, 17-20

제 2 독서 : 야 고 3, 16-4, 3

복 음 : 마 르 9, 29-36

숲 정 이

발행	천주교전주교구
편집	사 목 국
인쇄	관 리 국

편집실 : 전주서서노송동560~6
 전주 교구청
 ☎ ⑤ 5098 ⑤ 3201

강론



“첫째가 되려면...”

김 준 호 신부

그리스의 스파르타라는 도시에, 평소에 지도자로 존경을 받던 ‘페타레토스’라는 사람이 있었다. 마침 스파르타를 다스릴 왕로 300명을 뽑는데 그도 유력한 후보였으나 낙선되었다. 친구들이 유감을 표시하니 그는 “스파르타에 나보다 나은 사람 300인이 있으니 참으로 기쁘다.”라고 대답했다.

남을 높이고 시기하지 않았기에 그는 오늘날까지 전설의 인물로 그 이름이 남아 있는 것이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다편을 십자가를 생각하며 첩통하실 때, 제자들은 누가 제일 높으냐 하는 문제로 다투고 있었다. 이때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을 앉히고 “첫째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시며 따끔하게 타이르신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의 꿈과 포부를 부인하신 것이 아니라, 좀더 높은 차원으로 승화시킨 것이다. 예수님은 인생 전체의 행렬을 일렬로 세우시고 그 순서를 전도시켜 오히려 끝을 머리로, 머리를 끝으로 삼으신 것이다. 다스리려는 야심을, 섬기려는 마음으로, 남들이 우리를 위해 일하게 하기 보다는, 우리가 남들을 위해 일할 생각으로 바꾸시는 것이다.

사람의 참다운 위대함과 가치는 남을 섬기려는 마음에 있다. 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실행할 수 없는 높은 이상인 것이 아니라, 가장 실제적이고, 상식적인 것이다. 인류 역사를 볼 때 역사가 기억하는 큰 인물들은 자기의 포부 성취나 자기 이득만을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타인들을 위하고 섬기려는 마음으로 노력했던 사람들이었다. 역사는 그런 사람들을 기억해주고 있는 것이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듯이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물으신다. “무슨 일로 그렇게 대화하십니까?” 이 질문에 부끄럽지 않을 이가 있을까? 제자들이 그러했듯이 우리 역시 부끄러운 마음에서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태도, 삶의 모습, 또 살면서 하는 많은 대화들— 만일 예수님이 보시거나 들으신다면 장피할 일들은 아닌지, 우리들의 대화, 희망, 포부, 욕망을 주님 앞에 내놓는다면? 아니 우리는 인생행로를 걸어가며 무슨 토론에 열중하는지, 주님께서 동참하셔도 좋은 이야긴가?— 이 순간 부끄러워 할 줄 아는 것도 주님의 커다란 은총이다.

역시 인간의 모든 비극적인 문제는 누가 제일 높으냐 하는 이기적인 내기에서 빚어짐을 생각할 때, “첫째가 되려면 남을 섬기는 자가 되거라”— 주님의 말씀은 과연 진리다.

(장계천주교회 주임신부)



독립기념관 전립에 생각나는 일

1.

독립기념관 전립을 위한 열기가 대단하다. 해방된 지 37년이나 지나서야 이러니, 조국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순국 선열들에게는 부끄럽기 짝이 없다. 하기에 해방되고나서 밀어닥친 여러 상황들에 숨길 겨를이 없었다고 변명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난 시절의 위정자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애국정신과 위업을 기리는 사업에 정성을 다했다. 사실은 그때에 폭넓고 체계적인 사업을 전개했어야 옳았다. 한일 국교 정상화가 어찌되었던, 순국 선열에 대한 우리의 도리를 게을리 할 수는 없는 일이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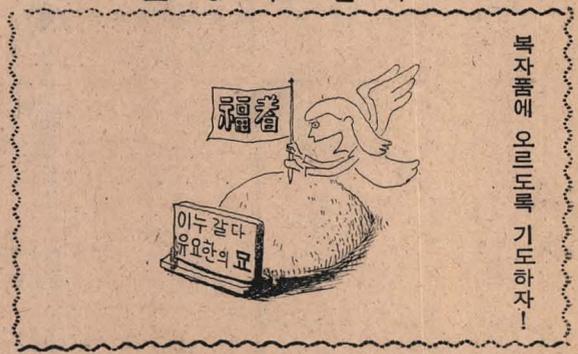
2.

성금(誠金)이란 원래의 뜻이 “신불(神佛)에게 정성으로 바치는 돈, 정성돈”이다. 지극한 정성에서 우려나는 돈을 성금이라 한다. 그러니 성금으로 독립기념관을 짓는 일은 참으로 좋은 일이다. 그런데 그 성금의 의미가 조금씩 퇴색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이번에 문교부가 액수의 기준을 정해서 지시하는 일이다. 물론, 일선학교로부터 “학생들의 성금 규모를 어떻게 정하는 것이 좋겠느냐”는 문의가 빗발쳐서 그런 지시를 했다고 하지만, 썩 좋은 방법이 못된다. 정성은 자기 마음을 다해야 하는 것이지, 어떤 기준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설사 그 기준이 예시일 뿐이고, 참가에 의의를 살리기 위해서 금액의 다과에 따라 학생들이 불쾌감을 갖지 않도록 하라는 당부가 덧붙여졌어도 마찬가지다. 기준에 미치지 못했을 때에는 누구나 마음이 좋지 못한 것이니가.

3.

독립기념관을 추진하면서,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순교 선열들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야 한다. 우리의 감사로운 뜻이 얼마나 표현되고 있는지를.

숲 정 이 산책



북자품에 오르도록 기도하자!

□ 200주년 준비특집②

기념사업은 모든 신자들의 일

우리 교회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전개되고 있는 200주년 기념사업은 신교 제3세기를 맞이하는 우리 교회에 새로운 활력을 주게 될 것이다. 현재 계획되어 추진되고 있는 기념사업은 다음과 같다. 이 기념사업은 모든 신자들을 위한 신자들의 일이므로 이에 대한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조인을 바란다.

1. **성서번역**: 현재 우리 교회에서는 공동번역 성서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공동번역 성서는 개신교와 천주교가 합동으로 번역한 것이며, 훌륭한 번역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20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 천주교회를 위해서는 성서에 대한 가톨릭적 주석이 첨부된 독자적인 성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다. 현재 신구약 권편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이 번역작업은 200주년 기념사업의 중요한 사업이 될 것이다.

2. **한국 천주 교회사 편찬**: 교회가 창설된 이후 200여년에 걸친 역사를 알려 줄 교회사의 편찬작업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교회사의 편찬은 학문적인 근거에 입각하되, 일반 신도들도 충분히 읽을 수 있는 방향에서 전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교회사 자료

정리 사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세계 도처에 산재해 있는 우리 교회에 관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에 이어서 교회사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을 동원하여 200주년 기념 한국 천주 교회사가 편찬될 것이다.

3. **시성 시복 운동**: 우리 교회는 100여년 간의 박해를 거치는 동안 1만 여명의 순교자를 배출하였다. 이들 중 1839년의 기해박해 때부터 1866년에 일어난 병인박해 때까지 순교한 103위의 순교자들이 복자로 선언되었다. 이들을 시성시켜 전 세계의 신도들로부터 추앙받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1801년의 박해를 비롯해서 혹독한 교회 탄압 기간에 순교한 그밖의 순교자들을 위한 시성 시복 운동이 필요하다.

4. **통일성가집 편찬**: 현재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 종류의 성가집들이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신도들은 교회의 전례에 참여할 때 여러 종류의 성가집을 가지고 다녀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이러한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통일성가집의 편찬이 꼭 필요하다. 통일성가집은 음악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신자들이 제창하기에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교회음악의 발전과 계속적인 성가작곡 작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성가집을 편찬하기 위한 작업이 현재 진행중에 있다. (오태순 신부)

對 日本(대 일본)

現下 신문에 실리는 일본의 역사적 사실 왜곡의 시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에 새삼스럽지도 않다. 다만, 이들의 저의가 무엇인가를 아래의 일들을 들이켜 봄으로써 살펴보기로 한다.

- 첫째, 독도의 영유권 문제를 들 수 있겠다
- 둘째, 1,900년경 일본인 정보 장교인 '사게 대위'에 의한 광개토태왕 비문의 날조 사건과,
- 셋째, 그들의 그릇된 식민주의관에 의한 한국인 분열의 조장과 열등감의 사대주의를 의식화시킨 것을 들 수 있겠다.

예를 들면 이조의 사색 당쟁을 지나친 파벌과 지방색적인, 급기야는 오늘의 영남이니 호남, 전라도니 경상도니 하는 부질없는 문제를 야기시켰으며, 삼천리 만도 금수강산이니 하는 말로 만주의 넓은 대륙을 지배한 우리 민족의 대륙적 기질을 왜소화시켰으며, 백의민족이라는 사대주의적 식민주의 잔재를 남긴게 누구인가를 들이켜본다면 오늘의 문제는 뉘가가 분명해지리라 생각된다.

강:그레고리오(김제)

숲정이 500호 기념집에 붙여

혹 어떤 사람은 아무렇게나 내갈진 원고지의 글씨가 처음으로 활자화 됐을 때의 감격을 기억할 것이다. 주보지로서의 시사성, 그때그때 읽어 넘기고 마는 비진지함, 단편적이고 절박한 내용,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영기에 한 권의 책이 이루어질런지 처음 나오서는 책을 구상한 편집인 여러분에게 심한 우려를 보내지 않을 수 없었다.

하나 막상 책을 손에 드니 진지하고 정돈되고 알찬 내용이 신기하기만 하다. 「전주교구」라고 박아진 걸장정부터 자랑스러워 몽땅 내가 쓴듯 어께가 으쓱하다.

놀랍다는 감격에 이어 조금 무모해보던(?) K신부님이 하 편집인들의 맘이 새삼 손끝에 닿는다. 운 같은 무더위에 피 같은 맘을 흘리셨구나 하는.

매주 반아는 주보 숲정이가 살아서 움직이듯 이책 또한 살아서 숨을 쉰다. 단지 전주교구의 과거를 엮어 놓은 것이 아니고 함께 살아 있는 모든 교구인의 산 증인이자 현재 가는 길, 앞으로 나아갈 길을 보여 주는 지침서이다. 종교계통의 책이라면 무조건 밀어 내는 우리집 양반에게 “이거 한 번 읽어보세요”하고 사뭇 당당히 내밀 수 있는 책을 마련해주신 편집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

(김안젤라)

□ 가을 관광

안내 상담

전 일 관광

전화 ⑥ 6666~8

제주도·설악산·한려수도

금·은·보석·시계

결혼예물을 하시는 교우에게는 혼배받지를 기념으로 기증함

보 석 장

군산경찰서 전북은행 앞

전화 ⑥ 6603

한 철 재(비오)

직원 채용 공고

사세 확장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원을 모집합니다.

모집인원: ○명 직종: 전기기사
자 격: 전주 시내 거주자로서 만 30세 이하 병역 필 또는 면제자, 공고 전기과 졸업자(유경험자 및 자격증 소지자 우대)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제출서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서
주민등록등본, 자필이력서

서류 접수기간: 8.2. 9. 27

신흥 콘크리트 ⑥6415·⑥6016 이 교 선



□ 교구 총대리에 황 인규 신부 임명

새 주교님을 맞이한 교구는 행정사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새로 총대리 겸 사무처장에 황 인규 신부를 임명하였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전 교구장 직무대행 김 환철 신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님께서 풍성한 은총으로 갚아주시길 기도한다. 새로 오시는 황 신부님께 수고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교구의 많은 발전을 기대해 본다.

□ 전동, 치명자 산의 새벽 미사

복자 성월을 맞은 전동 성당은 9월 13일부터 9월 23일까지 중바위(일명: 치명자산) 꼭대기에 있는 치명자 이 누갈다와 유 요한의 무덤 제대에서 매일 새벽 5시 30분에 본당 행사로 미사를 봉헌하고 있다. 순교의 정신을 생활로 본받고자 하는 100여명의 교우들이 이른 새벽의 단잠을 깨고 매일 미사에 참여하고 있다.

오는 24일(금)에는 오후 2시부터 김 진소 신부님의 강의가 있고, 이어서 3시에 주교님 집전의 미사를 드릴 예정이다. 순교 선열의 훌륭한 신앙정신을 높이 기리는 이 연례 행사는 도시인의 건강에도 좋다고 여겨진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어 순교 선열들이 흘린 피를 헹궈 하지 않도록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자.

□ 대학병원 아가다회 창립 7주년 행사

대학병원내 가톨릭 신자 의사와 간호원 및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아가다회는 지난 15일 전동 성당에서 창립 7주년을 기념하는 조촐한 행사를 가졌다. 지도신부(성 태수 신부) 주례로 미사를 봉헌한 후 무료 진료에 의약품을 제공해 주시는 영광약국 최 남열 약사님, 동화식품 윤 승열 약사님께 감사패 증정식이 있었으며 겸하여 저녁식사와 레크레이션도 있었다.

아가다회는 1975년 9월 10일 창립을 본 이래 구호, 입원환자 방문, 무료 진료 실시 등 바쁜 생활의 일정 속에서도 신앙인으로서의 보람과 가치를 찾아오고 있다.

현재 아가다회에는 30여명의 회원이 있으며, 격주 주요일마다 성서 모임을 갖고 있다. 매일 수무 본당에 무료 진료를 실시하고 있고, 어려운 환자들을 위한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

□ 정음·장수 본당의 고마운 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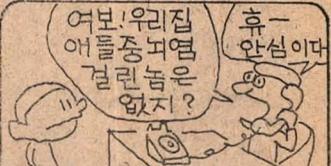
정음 본당 교우 중에 미사 때 사용하는 성작을 아름답게 단장해준 분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그것은 그동안 18개(정음 3, 수루 3, 원평 2, 부안 2, 성체회 6)의 성작을 서울에서 도맡아 주었다. 수녀님의 권유로 이 일을 시작하셨는데 앞으로도 힘차라는데까지 계속하실 의향이시지만, 아름을 밝히기를 끝내 원하지 않으셨다. 정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싶으신 것 같다. 또한 정음 본당은 상판 본당 장당 건축비로 60만원(예비비에서 50만원, 막 성빈(사도회장) 5만원, 강 인찬 신부님 5만원)을 협조해 주셨다.

한편 장수 본당 리다야씨께서는 매주 제대를 꽃으로 꾸며 주시어 예수님과 형제들에게 기쁨을 선사하고 있다. 숨은 일도 보시는 하느님께서서 이분에게 후하게 갚아주시기로 약속하셨음을 상기해 본다.

□ 영성 세미나(가스팔리노 신부 지도)

9월 8일 가톨릭 센터에서는 작은 자매 전교 수녀회 창립자이신 안드레아 가스팔리노 신부님을 모시고 사제, 수녀를 대상으로 하는 기도의 모임을 가졌다. 성체를 현시한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기도를 직접 체험하도록 하셨는데, 기도를 미리 준비하는 자세, 단순한 말로 기도할 것, 매사에 감사드리는 신앙 체험이 성공적인 기도의 비결이라 하셨다. 기도에 대해 가르치면서 기도를 맞들이신 신부님의 생생한 체험이 참석자 모두의 마음에 기도에 대한 뜨거운 갈망을 느끼게 하였다.

요심이 (476) 김병오



추석 맞이 아동복 봉사 세일

유명 메이커 제품
직접 구입 판매

목적: 유치원, 수녀원 신축 기금 조성

일시: 82. 9. 25~26(2일간)
오전 9시 개장

장소: 팔마 성당

주최: 성 모 회

후원: 팔마성당 건축추진회
팔마 신용협동조합

직원 채용 공고

모집인원: 남자 ○명
자 격: 전주 시내 거주자로 고졸이상 30세 이하
병역필, 면제자, 주산 부기 3급 이상인자
제출서류: 자필이력서, 최종학교 졸업증서, 주민등록
초본(병역사항 기재) 자격증 각 1부
접 수: 82. 9. 20~9. 30 17시
전형방법: 필기, 실기, 면접
전형일시 및 장소: 82. 10. 5 14시 당 신협 사무실
전주 파티마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이 교 성
전주시 호자동 1가 194(전화 4559)

□ 각종 신발 도산매

새마을 신집

숙녀화·아동화·특수화

남부시장 제일새마을금고 앞

김 문식(베드로)

가옥 급 매매

주소: 군산시 조촌동 789-15
대지: 64평, 건평: 25평
용자금: 200만원(국민주택)
매도인부담
가격: 현찰 1,600만원
연락처: 파티마 성당
전화 0915

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1. 김제 용지공소 낙성식: 19일<토> 오후 2시, 주례-박주교님
 2. 평협 제 2 차 방문사도직: 25일<토> 오후 2시 -중앙·노송·송정, 4시-전동·덕진·복자, 6시-서학동·파티마 ※ 상임위원 및 임원회의 18일<토> 오후 2시
 3. 제 4 지구 주일학교 성가 합창경연대회: 일시-26일 오후 2시, 장소-성심여중교 강당, 일정-2시 미사(주교님 집전) 3시 대회
 4. 제 6 지구 순교복자 현양대회 및 체육대회: 일시-10월 9일<일>, 장소-무주 천주교회
 5. 축! 명명: 21일-성마태오 황 인규·유 중환·김 진석 신부님
- 숲정이 515호(10월 3일주보)의 본당소식은 추석 연휴관계로 9월 25일<토>까지 도착바람

(중앙)

전화 ⑥1711~3
 주임 신부 문정현
 보좌 신부 박인협
 사도 회장 김인협

- ※ 성경읽기: 에베소서 4장, 마태 9장
1. 성모회: 공식 미사 후
 2. 착한 사마리아인회: 22일 오후 2시
 3. 유아세례: 24일 10시까지 사무실에 나오세요
 4. 주일학교 4지구 성가 경연대회: 26일 성심학교 강당
 5. 영세자 모임: 81년 12월, 82년 4월·7월 영세하신분들은 19일 10시 30분 미사후 강당으로 모여주세요
 6. 병자방문: 21일
 7. 공소미사: 19일 오후 3시
- 지난주 봉헌금: 850,441원 교무금: 390,500원

(서학동)

전화 ⑥2276번 주임 신부 김병환
 사도 회장 황인규

1. 할머니회 모임: 공식 미사후
 2. 예비자 교리시간: 일반·성인-공식 미사후
젊은이들-목요일 저녁 7시, 학생-토요일 오후 5시
 3. 미사시간 변경: 새벽미사 5시 30분을 6시로
 4. 교무금 미납하신 분들께서는 속히 납부하십시오
 5. 추석 합동 위령미사: 연령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6. 다음주 전례담당: 독서-①김나섭 ②이정빈
- 지난주 봉헌금: 228,990원 교무금: 96,500원

(숲정이)

전화 ⑥7366 주임 신부 이대권
 주·유 ⑥9567 사도 회장 김수겸

1. 성모회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후
 2. 요안회 월례회: 26일 공식 미사후
 3. 주일학교 아동성가 경연대회: 26일 오후 2시 성심학교
 4. 중·고등학생: 토요일 학생미사와 교리에 참여하십시오. 부모님들께서는 학생들을 학생미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 차주전례담당: 해설-이철수, 독서-박명열·선종현
기도-강원모
 6. 미사 참례자 안내: 권은순, 손철자, 최윤희, 김혜래나, 김숙현, 임동례
- 지난주 봉헌금: 401,305원

(노송동)

신부 ⑥0969 주임 신부 김정원
 수·사 ⑥7032번 보좌 신부 박성팔
 사도 회장 이홍재

1. 추석 합동 위령미사: 먼저가신 선영들을 위해 미사예물 봉헌 합시다
 2. 꾸리아 옥의행사: 오늘 오전 10시 20분, 장소-인후동 안뜰, 참가범위-레지오 전단원, 준비물-도시락·묵주·밧세라
 3. 어린이 미사시간 변경: 오늘부터 오후 2시
 4. 교무금 납부의 날: 오늘은 교무금 납부의 날입니다
 5. 금주의 성경읽기: 제 2경전에-유딧·에스델전체
 6. 예비자 교리안내: 일반-매주<일>공식 미사후, 남자반-매주<목>저녁 8시, 학생반-매주<토>오후 4시
- 지난주 봉헌금: 334,075원 교무금: 189,000원

(덕진)

전화 ⑥2182번 주임 신부 서석기
 보좌 신부 안철문
 사도 회장 양상열

1. 성모회 월례회: 할머니들 꼭 참석 하세요
 2. 예비자 교리: 매주 공식 미사후-수녀님 지도,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안신부님지도
 3. 추석 합동 위령미사: 먼저가신 선영들을 위하여 미사 봉헌바랍니다(미사예물은 사무실에 접수)
 4. 다음주 월례회: 부녀회·진복회 꼭 참석 합시다
 5. 9월은 복자 성월입니다
순교 선영들의 뜻을 기리며 신앙인으로써의 생활을 다합시다
 6. 병자성사: 가정에 환자모시고 계시는 분은 사무실에 연락바람
 7. 고등초 공개 썰: 19일 오후 2시 2층회의실
- 지난주 봉헌금: 491,050원

(복자)

전화 ⑥5238번 주임 신부 김종택
 사도 회장 조성호

1. 사도회: 다음주일 공식 미사후
 2. 애령회: 26일<일>공식 미사후
 3. 부녀회: 속죄의 뜻으로 내주신 기금(5백만원)이 마련되었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4. 반미사 및 성시간: 21일<화>-교사동 1·2·3반, 23일<목>-화산 1·2·진복 4·5반, 24일<금>-태평 1·2·3·진 1·2반, 28일<화>-태평 4·5·6·7반
 5. 추석 합동 위령미사: 10월 1일<금>저녁 7시, 먼저가신 선영들을 위해 합동 위령미사를 봉헌 합시다
 6. 금주전례: 해설-김재식, 독서-①정진철 ②이병래
다음주전례: 해설-김인식, 독서-①정동민 ②노순덕
- 지난주 봉헌금: 364,030원

(전동)

전화 신부 ⑥208 주임 신부 김병업
 사부 ⑥3222 보좌 신부 박병준
 수녀 ⑥8347 사도 회장 이종두

1. 성화회: 공식 미사후
 2. 꼬미시움: 19일 오후 2시
 3. 글라라 형제회: 다음주
 4. 치명자 산미사: 13일~23일, 산미사동안 본당 아첨미사 없음, 24일-김진소 신부님 강의(오후 2시), 오후 3시 미사-주교님 집전
 5. 복자축일 영세자 특별교리: 13일~25일 오후 8시
 6. 주일학교 성지순례: 19일 미리내 자연농원
 7. 중·고생 예비자 교리: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30분
 8. 교도소에 많은책을 기증해 주신 박도식 내외분께 감사 드립니다
 9. 추석 합동 위령 미사있음
 10. 다음주 전례담당
아침미사: 해설-박중주, 독서-①최병래 ②김동연
공식미사: 해설-양형홍, 독서-①이영희 ②김병오
저녁미사: 해설-경양수, 독서-①정동희 ②장수철
- 지난주 봉헌금: 555,120원

(파티마)

신부 ⑥0915 주임 신부 김영일
 수녀 ⑥4804 사도회장 황희상

1. 영세식: 오늘 오후 2시 영세와 미사후 사도회와 성모회에서 영세자를 위한 파티가 있습니다
 2. 성모회 성지순례: 10월 13일, 사무실에 신청바람
 3. 10월 1일은 추석입니다: 선영들을 미사로써 도우며 공경합시다
 4. 레지오 회합이 추석날 당하는 브레시디움은 회합을 앞당겨 주시기 바랍니다
 5. 이번 영세자들께서는 가끔적 레지오에 가입하여 복음 전파에 힘써주세요
 6. 경향잡지와 가톨릭시보(주간지)신청을 9월말까지 하여 주십시오
- 지난주 봉헌금: 185,640원 교무금: 153,000원